

研究論文

고문서학 연구 방법론과 활성화 방안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할과 연계하여 –

전 경 목*

-
- | | |
|---------------------|---------------------|
| I. 머리말 | IV. 古文書學 연구의 활성화 방안 |
| II. 古文書學의 成立과 研究 現況 | V. 맷음말 |
| III. 古文書學의 研究 方法論 | |
-

I. 머리말

조선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자주 대하는 史書들 예컨대 『朝鮮王朝實錄』이나 『備邊司瞻錄』 등은 매일매일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편찬자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사료 중에서 자신의 관심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편집한 책이다. 따라서 편찬 과정에서 특정한 사건의 내용이 과장되거나 심지어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宣祖나 顯宗 및 肅宗의 實錄이 편찬된 후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修正實錄이나 改修實錄 등이 간행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고문서는 편찬자의 취사선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말 그대로의 一次史料이다. 따라서 사료로서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고문서가 수집·조사되고 연구된 이래 법제사와 경제사, 역사학과 국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1980년대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 고문서학 전공.

이후 고문서 연구를 위한 입문서가 간행되고 고문서를 영인하거나 활자화한 자료집들이 잇따라 출간되면서 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간의 고문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고문서를 하나의 자료로 이용한 연구였을 뿐, 고문서 그 자체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고문서의 종류나 형태, 고문서의 재질과 양식 등 고문서 그 자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동안 고문서 자체를 학문적 대상으로 삼아 접근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고문서학회가 창립되고 동 학회 주관 하에 고문서의 수집과 정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¹⁾ 최근에는 고문서 정리 표준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²⁾ 또 고문헌 연구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이 생기고 고문서의 형태나 재질을 분석하는 등 고문서 자체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³⁾ 이러한 시도와 연구 성과는 고문서학을 역사학의 보조 학문으로 여기지 않고 고문서학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체계를 이루려는 연구자들의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다. 고문서학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자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문서학이란 무엇이며 고문서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이어서 장차 고문서학이 발전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지를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고문서학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1991년 4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고문서학회 창립을 위한 총회와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는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이었으며 그 내용은 후에 『정신문화연구』, 제15권 1호(1992)에 게재되었다.

2) 한국고문서학회에서 2001년과 2002년에 국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한국고문서 정리표준화 연구’라는 주제를 검토한 바 있다. 연구 결과는 『고문서연구』 22(한국고문서학회, 2003)에 수록되어 있다.

3) 박준호, 「韓國 古文書의 署名 形式에 관한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3); 손계영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4).

II. 古文書學의 成立과 研究 現況

1. 古文書學의 정의와 범위

연구자들 사이에 고문서가 ‘옛 문서’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고문서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허홍식은 “사료의 일부분인 古文書를 독립시켜 여기에 관점과 방법 그리고 資料批判의 세 가지를 토대로 정립한 분야가 古文書學이다. 따라서 고문서학은 고문서를 주 대상으로 삼고, 관점이나 방법을 발전시켜 종합한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다.⁴⁾

이에 비해 최승희는 고문서학을 “古文書에 대한 知識을 整理하여 體系化시키는 學問”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은 “① 古文書의 種類 ② 古文書의 外形 ③ 古文書의 構成 등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⁵⁾. 위의 두 견해를 비롯하여 고문서학에 대한 기왕의 언급들에 필자의 의견을 덧붙여서 고문서학을 정의한다면, “고문서학이란 고문서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시킨 학문으로서 그 대상은 고문서의 내용과 양식 및 형태 등을 비롯하여 고문서의 재질이나 書體 및 보존 방법과 眞偽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고문서학의 정의와 관련하여 반드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첫째, 어느 시기에 작성된 문서까지를 고문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둘째, 어느 형태의 자료까지를 고문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점, 그리고 셋째, 어디까지를 고문서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고문서의 하한을 어느 시기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현재 대략 세 가지 견해가 있다.⁶⁾ 그 중 하나가 1894년설이다.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官制가 전면적으로 개혁되고 文書式도 新式으로 크게 바뀌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전에 작성된 문서만을 고문서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실제로 이들은 갑오개혁 이후로는 모든 문서를 규격이 일정한

4) 허홍식, 『한국의 古文書』(민음사 1988), 12쪽

5) 최승희, 『韓國古文書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쪽

6) 허홍식은 우리나라 고문서에 대해 4시기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 첫째, 고대로부터 조선초까지, 둘째, 한글장제 후부터 왜란까지, 셋째, 왜란 후부터 개항 이전까지, 넷째, 개항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구분하였다. 허홍식, 앞의 책, 14~15쪽 참조

양면 패지[印札綱]나 인쇄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國漢文을 혼용하도록 하였던 점, 문서 작성과 발송 및 수신과 보관 방식 등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⁷⁾ 따라서 이와 같이 큰 변화가 초래된 1894년을 고문서의 하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910년설이다.⁸⁾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갑오개혁으로 말미암아 문서의 작성과 발송 및 수신과 보관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는 하나 이러한 제도의 변혁이 지방에까지 보급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갑오개혁 기간 중에도 지방에서는 여전히 舊樣式에 따라 문서가 작성되었으며 더군다나 개혁세력이 정치적으로 실각하게 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곧바로 예전 체제로 환원되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의 문서를 살펴보면 민간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新樣式을 따르지 않고 그간 익숙하게 사용하던 구양식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10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조선 시대의 구양식에 의거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문서작성상 결정적인 변화가 초래된 것은 일제의 통치가 시작되던 1910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1945년설이다.⁹⁾ 최근 일제시기 문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 시기에 생산된 문서도 고문서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일제시기에 관공서에서 작성한 문서들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민간인끼리 주고받은 문서나 관에서 작성했지만 민간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은 별도로 수집·정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작성된 문서들도 고문서의 범주에 포함시켜 시급히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 최근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주도로 이 시기의 문서를 대대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¹⁰⁾

고문서의 시기적 하한에 관한 위의 세 가지 견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설득력

7) 대한제국 시기의 문서 작성과 수발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귀선, 「대한제국시기 기록문화」, 『대한제국기 고문서』(국립전주박물관, 2003), 240~259쪽 참조.

8) 최승희, 앞의 책, 6쪽.

9) 정구복, 「한국 고문서의 특징과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의 기초적 연구」, 『한국고문서정리표준화 연구』(한국고문서학회 2002).

10) 이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kuksa.nhcc.go.kr>) 참조

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고문서 연구자들은 대체로 두 번째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¹¹⁾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문서들이 오늘날의 문서와 유사한 점이 많아서 근현대사 전공자들이 이 시기의 문서를 고문서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문서들은 전통시기의 여러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조선시기나 대한제국시기 연구자들이 이 시기의 문서를 고문서로 취급하는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자료들을 고문서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고문서는 원래 속성상 낱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노비매매입안이나 분재기와 같이 여러 장이 연접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사실은 이것도 결국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功臣錄券이나 忠勳府受敎 등과 같이 처음부터 아예 성책하여 발급하는 문서도 있었는데 편의상 이와 같은 문서를 낱장 고문서와 대비하여, 성책고문서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책고문서를 고문서의 범위에 포함시키다보니 자연히 성책된 각종 자료들 예컨대 호적대장이나 양안 및 일기 등도 고문서로 분류하는 연구도 있었다.¹²⁾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분류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성책된 각종 자료와 고문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승희는 일찍이 文獻을 編纂 · 編輯類, 著述類(詩 · 文), 記錄類(日記 · 備忘錄), 帳簿類(帳籍 · 量案 · 帳記), 謄錄類 및 (古)文書 등 6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¹³⁾ 이에 따르면 호적대장이나 양안은 장부류로 그리고 일기는 기록류로 분류해야 한다. 필자는 최승희의 분류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고문서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고문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고문서의 정의에 어긋나는 각종 문헌들까지 고문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¹⁴⁾

끝으로, 고문서학의 범주를 어느 정도로까지 한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

11) 김동욱은 『고문서집전』(연세대학교 출판부, 1972)을 발간하면서 주로 임진왜란 이전 문서를 소개하여 마치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문서만을 고문서라고 한 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이는 자료의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소개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허홍식, 앞의 책, 15쪽 참조

12)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정리 표준화안 연구결과보고서』(2003. 9), 53~75쪽

13) 최승희, 앞의 책, 8쪽

14) 고문서의 개념에 관해서는 위의 책, 1~7쪽 참조

다. 좁은 의미에서 고문서학이란 고문서의 형태나 재질 등 고문서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고문서학을 정의하면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까지를 고문서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고문서학은 고문서의 내용을 연구하는 내적연구와 고문서의 재질이나 형태 등을 연구하는 외적연구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내적연구는 고문서의 내용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법제사, 국어학, 역사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를 모두를 고문서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연구의 범위가 매우 방대해진다. 이에 비하여 외적연구는 고문서의 재질이나 형태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범위가 크게 축소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고문서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광의의 고문서학은 내적연구와 외적연구를 모두 포함하며 협의의 고문서학은 외적연구만을 가리키는데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주로 전자를 지칭하되 협의의 고문서학을 지칭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겠다.

2. 고문서학의 도입과 발전 과정

이제 고문서학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¹⁵⁾ 논의의 편의상 자료의 수집·정리·발간과 연구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살펴보겠다.

1) 제1기(1910~1945): 도입기

우리나라에서 고문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일제시기이다.¹⁶⁾ 일본은 한국을 강제적으로 병합하기 위해 사전에 한국의 역사·지리·문화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는 원활한 통치를 위해 조사

15) 허홍식, 앞의 책, 16~21쪽 참조

16) 우리나라 고문서학의 출발을 과연 일제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 며 따라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말기와 대한제국시기에 『儒胥必知』나 『國民必攜』와 같은 일종의 문서 서식집이 간행된 바 있는데 비록 당시의 문서작성자들을 위한 안내책자에 불과하지만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와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고문서에 대한 연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朝鮮寺刹史料』(1912), 『朝鮮古蹟圖譜』(1918), 『朝鮮史料集眞』(1936), 『李朝の財産相續法』(1936), 『李朝の祭祀相續法』(1939), 『朝鮮田制考』(1940) 등이 출간되었는데 이들 자료집과 연구물에 실린 고문서 중에는 현재 그 원본이 전해오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 외에도 周藤吉之는 「朝鮮後期の田畠文記に關する研究」(1937)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비록 원활한 한국 통치를 위해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이긴 하지만 이 무렵에 고문서를 조사·수집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고문서학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2) 제2기(1945~1980): 성장기

해방 이후부터 1980년 무렵까지는 우리나라 고문서 연구의 일대 성장기에 해당한다.¹⁷⁾ 이 시기에 이르러 각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고문서 관련 강좌가 설강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고문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되었다. 그 결과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물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이 시기를 이끌어간 학자들은 박병호, 최재석, 남풍현, 허홍식, 이수건 교수 등이다. 이들은 법제사를 비롯하여 사회학, 국어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문서를 이용한 논문과 저서들을 발표하였는데 이 때 발표된 연구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박병호, 『韓國法制史特殊研究』(1960).
- 박병호, 『傳統的 法體系와 法意識』(1972).
- 박원선, 『負裸商』(1965).
- 최재석, 『朝鮮時代의 相續制에 관한 研究』(1972).
- 남풍현, 「一三世紀 奴婢文書의 吏讀」(1974).
- 최홍기, 『韓國戶籍制度史研究』(1975).
- 허홍식, 「國寶戶籍으로 본 高麗末의 社會構造」(1977).

17) 1945년부터 1960년까지 고문서와 관련된 논문이 한편도 발표되지 않고 또 관련 자료집도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공백기’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해방과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고문서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 활동도 어려웠다. 따라서 이 시기를 굳이 따로 떼어 공백기로 구분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허홍식, 「朝鮮初 沈敬宗의 功臣戶와 그 分析」(1978).

이수건, 『嶺南土林派의 形成』(1979).

한편 이 시기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집도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이 자료집들은 다양한 고문서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소개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문서를 직접 접해보지 못한 많은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때 발간된 자료집들은 다음과 같다.

김동욱, 『古文書集眞』(1972).

서울대도서관, 『古文書集眞』(1972).

3) 제3기(1981-2005): 도약기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제3기는 한국고문서 연구에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타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두드러진 업적들로는 첫째, 고문서 연구 입문서의 출간, 둘째, 체계적인 자료집의 지속적인 발간, 셋째, 한국고문서학회의 창립, 넷째 고문서 전문 연수과정의 개설 등을 들 수 있다.

① 고문서 연구 입문서의 출간

1981년에 최승희는 최초의 고문서 연구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고문서연구』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고문서를 공부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아주 좋은 지침서인데 출간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고문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이 책이 간행된 이후 고문서를 이용한 논문들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보면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같은 해에 이수건은 경북지방의 고문서를 조사·정리하여 『경북지방고문서집성』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¹⁸⁾ 이 책 또한 최초의 체계적인 고문서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두 책이 발간된 것은 우리나라 고문서 연구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될 만한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허홍식은 1981년이 ‘한국 고문서학의 기념비적인 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¹⁹⁾

18) 이수건, 『慶北地方古文書集成』(嶺南大學校 出版部, 1981).

② 체계적인 자료집의 지속적인 발간

이수건의 『경북지방고문서집성』 발간은 그 이후 고문서 자료집이 지속적으로 간행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교들이 전국 각지에 散在해 있는 고문서들을 조사·정리하여 자료집으로 간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경북 禮安의 외내[烏川]에 세거하던 광산김씨 소장 고문서를 자료집으로 발간한 것을 필두로 연차적으로 전북 부안 우반동의 부안김씨, 전남 해남의 해남윤씨 등 전국 각지의 宗家에 보존되어 있는 고문서들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현재까지 무려 70여 책이 출간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서울대 도서관과 규장각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들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고문서』라는 이름의 연속간행물로 자료집들을 발간하였다. 1986년에 국왕문서와 왕실문서가 1책으로 발간된 이래 현재 거의 30여 책이 출간되었는데 이 사업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에도 전남대 박물관과 전북대 박물관 및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고문서들을 자료집으로 발간한 바 있다.²⁰⁾

③ 한국고문서학회의 창립

한국고문서학회는 고문서의 조사와 수집을 활성화하고 고문서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연구 방법론 등을 모색하기 위해 1991년에 박병호, 이성무, 정구복 등이 중심이 되어 발족되었다. 이 학회는 창립 초기부터 거의 매달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매년 2차례 『古文書研究』라는 학회지를 발간하여 우리나라 고문서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한편 후진 학자 양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1991년 10월에 『고문서연구』 창간호가 출간된 이래 2005년 2월까지 발간된 26 책에는 총 15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15년 동안에 이룩된 이러한 업적은 양적인 면에서

19) 허홍식, 앞의 책, 20쪽.

20) 대표적인 것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1~5)(1983~2001);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라도 무장의 함양오씨와 그들의 문서』(1~2)(1986, 198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고문서집성』(1~2)(1991~1992).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고문서 연구자의 층이 그리 두텁지 않다는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발행 회수나 수록 논문이 결코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들 논문들은 대부분 고문서를 이용하거나 고문서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문서 연구에 굳건한 밑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④ 고문서 전문 연수과정 개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4년에 韓國草書와 日本草書를 해독할 수 있는 연수 일반 과정(1년 코스)을 開設하였고 6년 후인 2000년에는 고급 과정을 添設하였다. 지금까지 이들 과정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초서를 해독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중이다. 또 2000년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속 한국학대학원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고문헌관리학전공이 신설되었고, 최근에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초서를 해독할 수 있는 연수과정(3년 코스)을 개설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연수와 교육을 통하여 초서로 작성된 고문서를 능숙하게 해독하고 그 내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고 있다. 難解한 초서와 고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인력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현실 속에서 후속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들이 몇몇 기관에 의해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3. 고문서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제 우리나라 고문서 연구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²¹⁾ 우선 지금까지의 고문서 관련 연구 현황을 편의상 『古文書研究』에 수록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문서연구』는 2005년 2월까지 26책이 발행되었으며 거기에 실린 논문은 모두 158편이다 이를 시기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21) 정구복,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신문화연구』, 제15권 1호(1992), 15~35쪽 참조

<표 1> 『고문서연구』에 수록된 논문 분석

구분	역사학	고문서학	국어학	경제사	법제사	합 계
고 대	·	·	2	·	·	2
고 려	5	·	3	·	·	8
조 선	83	19	12	10	7	131
일제시대	1	1	·	·	1	3
통 시 대	·	9	·	1	·	10
기 타 ²²⁾	·	4	·	·	·	4
합 계	89	33	17	11	8	158

위의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158 편의 논문 중 시대별로는 조선시대 관련 논문이 131편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은 고려시대 8편, 일제시대가 3편 및 고대시대 2편 순이었다(통시대와 기타는 제외). 또 분야별로는 역사학 관련 논문이 89편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는 고문서학 33편(물론 여기에서의 고문서학은 협의의 고문서학이다), 국어학 관련 논문이 17편, 경제사가 11편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나 시대별로는 조선시대를 다룬 논문이, 그리고 분야별로는 역사학과 관련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대한 논문이 주류를 이룬 이유는 조선시대에 작성된 고문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고 역사학 관련 논문이 다수를 차지한 까닭은 고문서학이 여타의 학문보다 역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고문서학이 역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된 학문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승희는 “古文書學은 歷史學의 補助學 또는 史料學의 性格을 갖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이 견해와 마찬가지로 고문서학을 일종의 사료학이나 역사학의 보조학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²³⁾ 최승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古文書學 그 自體가 아니라 古文書를 우리 문화,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데 기본 되

22) 기타로 분류한 논문들은 서양이나 일본의 고문서학과 관련된 것들이다.

23) 최승희, 앞의 책, 7쪽

는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고문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얻는 일이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⁴⁾

이와 같은 주장은 고문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고문서를 연구 자료로서 적극 활용토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며 고문서나 고문서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고문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역사학의 보조 학문에 머무는데 이러한 인식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고문서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역사학의 보조 학문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은 고문서학이 일찍부터 발달했다고 알려진 이웃 일본이나²⁵⁾ 유럽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²⁶⁾ 즉 이들 나라에서도 고문서학이 오랫동안 역사 연구의 보조 학문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발전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고문서를 기본 자료로서 적극 활용하려면 고문서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한층 깊어져야 하고 아울러 고문서학이 독립된 체제를 갖춘 학문으로서 시급히 정립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위의 <표 1>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문서학과 직접 관련된 논문이 무려 33건이나 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것은 고문서 연구를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논문을 고문서학 세부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문서학과 직접 관련된 33편의 논문들은 6개 분야에 걸쳐서 발표되었는데 이들 논문들 중 대부분은 2000년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다. 이는 고문서 연구자들이 고문서학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문서학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다고 해서 곧바로 고문서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古文書學의 定立은 한 두 명의 學者에 의하여 一朝一夕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많은 學者들이 오랜 研究를 쌓아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24) 위의 책, iii쪽

25) 윤행순, 「文章表記에서 본 日本의 古文書」, 『고문서연구』 16·17(1999), 7쪽.

26) 체사례 파울리(저)/김정하(역), 『서양 고문서학 개론』(아카넷, 2004), 444~445쪽.

다”라는 최승희의 견해처럼²⁷⁾ 고문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려면 많은 연구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2> 고문서학 관련 논문 분석

구분	분류정리론	양식론	재료학	조사/정리	해석론	기타 ²⁸⁾	총계
수량	4	6	3	9	1	10	33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서울대 규장각 등을 비롯한 여러 연구 기관에서 수많은 고문서 자료들을 수집·정리·간행해 왔고, 또 이를 해독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고문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하여 우뚝 설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문서학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서는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²⁹⁾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문서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조사·분류·정리 방법론 등이 정립되고 고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는 양식론과 해석론 및 진위를 판별하는 감정론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고문서 보존이나 활용 등과 관련한 보존 방법론이나 활용론 등도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사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보존과학과 같은 이질적인 학문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해야 한다.

III. 古文書學의 研究 方法論

이제 고문서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해

27) 최승희, 앞의 책, ii~iii쪽.

28) 기타는 일본과 서양의 연구 동향이나 우리나라 고문서 연구의 흐고와 전망 등을 다룬 논문들이다.

29) 고문서학이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려면 단순한 주장이나 선언보다는 존립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철학이나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살펴보자. 이를 세 가지 측면, 즉 첫째, 고문서학 연구를 위한 기초 수립 둘째, 새로운 연구 방법론 개발, 셋째, 고문서학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겠다.

1. 고문서학 연구를 위한 기초 수립

고문서학이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보다 체계적인 고문서 연구 입문서와 각종 사전류를 시급히 편찬해야 하고, 둘째, 고문서 정리를 위한 효율적인 표준안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연구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넷째,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점들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고문서 연구 입문서와 사전류 편찬

고문서학이 발전하려면 일차적으로 고문서에 대한 정확한 해독과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모두 정확한 해독과 해석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입문서나 용례집 그리고 사전 등이 필수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즉 ‘古文書의 理解’나 ‘古文書 演習’ 등과 같은 입문서³⁰⁾ ‘古文書用語集’이나 ‘古文書用例辭典’을 비롯하여 ‘俗字辭典’, ‘異體字辭典’, ‘簡字辭典’과 같은 사전류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최승희가 『한국고문서연구』라는 입문서를 출간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 분야의 입문서는 이 책 하나 밖에 없으며, 『古法典用語集』³¹⁾이나 『古文獻用語解例』³²⁾ 같은 사전류도 역시 출간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권도 추가로 발간되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고문서 학계에서는 이러한 입문서와 사전류 편찬과 간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0)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韓國古文書演習』과 『法制史料講讀』 등을 편찬 간행한 바 있는데 편저자는 최승희와 박병호이다.

31) 法制處, 『古法典用語集』(育志社, 1979).

32) 金在得, 『古文獻用語解例』(배영사, 1983).

이웃 일본의 경우, 상세한 고문서 입문서와 다양한 사전 등이 많이 출간되어 있어서 초보 연구자들이 이를 잘 활용하면 웬만한 고문서는 거의 판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고문서 입문서와 사전류의 편찬 간행은 고문서학의 발전을 위해 굳건한 초석을 다지는 일임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 등에는 이미 많은 고문서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에 고문서를 전공한 학자들이 많이 양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자료와 연구 인력을 활용한다면 입문서와 사전 편찬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2) 고문서 정리 표준안 보완

그동안 수집된 방대한 양의 고문서를 정리하려면 우선 표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고문서를 수집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문서를 분류·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산화를 한다면 나중에는 자료가 서로 소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안 마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표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하나는 고문서 정리와 분류 차원에서의 표준화(정리·분류 카드)이고 다른 하나는 전산화 차원에서의 표준화(문자코드, 메타데이터, 시소러스, 이미지, 하이퍼텍스트 등)이다.³³⁾

한국고문서학회에서 2001년부터 2개년에 걸쳐 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고문서 정리카드 전용입력 프로그램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³⁴⁾ 또 2003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초학문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표준안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문서를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성이나 자료 구축의 안전성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향후 이러한 점들이 완전하게 보완된다면 한국고문서학회안이 표준안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³⁵⁾

33) 이남희, 「디지털 시대의 고문서정리 표준화」, 『고문서연구』 22(2003), 36쪽 참조

34) 한국고문서학회, 앞의 책 참조

35) 성봉현, 「고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현황」, 『고서·고문서에 비친 조선시대인의 삶』(장서

3) 연구 인력 양성과 자료 수집

연구 인력 양성과 자료 수집은 고문서 연구를 시작하던 초기부터 누누이 강조되어 왔던 사안이며³⁶⁾ 아직은 미흡한 점들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잘 시행되는 편이다. 우선 인력 양성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는 여타의 기관에 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고문서와 서지학 및 인문정보 전임교수를 초빙하고 교과 과정을 크게 개편하여 고문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초서를 해독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연구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자료 수집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그 동안 주로 경상도의 종가와 향교 및 서원 등에 소장되어 있던 고문서를 조사·정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수집 지역을 충청도와 경기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장차 다양한 지역의 여러 자료들이 수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전국 각 지방에 있는 향토사 연구자들을 사료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고문서를 수집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료까지 수집하고 있는 중이며³⁷⁾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경북 일대에 있는 종가의 고문서를 수집하여 현재 상당히 많은 자료가 집적되어 있다.³⁸⁾

2. 새로운 연구 방법론 개발

고문서학이 독립적인 체계를 가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보자.

1) 고문서학의 세부 분야 정립

고문서학의 세부 연구 분야로 어떤 항목들이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

각 전적 및 수집 고문서 기초연구 중간 발표문), 117~126쪽 참조

36) 박병호, 「고문서 자료의 수집·정리문제」,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1호(1992), 11~13쪽 참조

37) 국사편찬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kuksa.nhcc.go.kr>) 참조

38) 한국국학진흥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reastudy.or.kr>) 참조

은 이제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학계만의 형편은 아닌 듯싶다. 우리나라보다 고문서에 대한 연구가 앞선 중국 또는 유럽의 논문이나 저서 중에서도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³⁹⁾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様式論的 연구와 形態論的 연구 및 機能論的 연구로 나누어 고문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⁴⁰⁾ 우리의 실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⁴¹⁾ 그래서 필자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하나의 試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차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정하고 보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고문서학은 크게 고문서의 내용을 연구하는 내적연구와 고문서의 재질이나 형태 등을 연구하는 외적연구로 나눌 수 있다.⁴²⁾ 내적연구는 고문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영역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관련 분야에 따라 경제사, 법제사, 국어학, 역사학 등으로 구분할 있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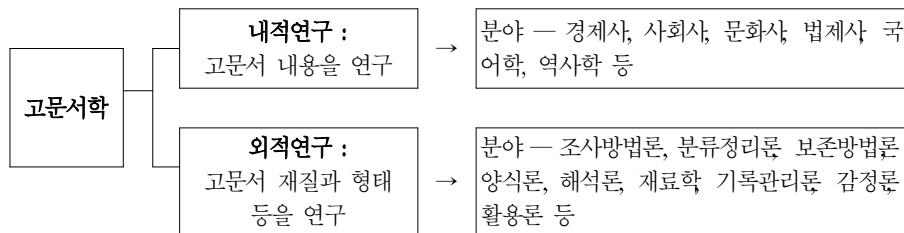
39) 이탈리아의 고문서학자인 체사레 파올리의 『서양 고문서학 개론』을 살펴보면 고문서학에 대한 정의와 일반 개념, 문서의 준비와 제작, 문서의 본문, 문서의 조서, 문서의 날짜 서식, 문서의 외적인 성격, 문서 전통과 문서 보존 등이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는 고문서학의 세부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

40) 윤행순, 앞의 논문, 7쪽, 李榮薰, 「日本의 古文書學과 様式分類」, 『한국고문서정리표준화연구』(한국고문서학회, 2002), 92쪽 참조

41) 일본고문서학 개론서들을 살펴보면 양식론적 연구의 주대상은 분류법이고, 형태론은 외형이며, 기능론은 문서가 지니는 기능이다. 일본에서는 양식론과 형태론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형태론이 발달한 이유는 종래 고문서 연구의 1차 목적이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진위 감별의 기준이 되는 고문서의 각종 형태에 대해 연구를 집중하였다. 기능론적 연구는 최근에 佐藤進一이 제창하여 추가된 분야이다. 우리나라 고문서 연구의 경우, 양식론과 형태론으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능론적인 연구가 우리의 형편과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2) 고문서 연구를 내적·외적 연구로 구분하는 방식은 일본의 경우와 같으나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윤행순, 앞의 논문 참조

<표 3> 고문서학의 분야와 계통도



그런데 내적인 연구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시행해 온 고문서 연구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외적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⁴³⁾ 외적연구는 위 <표 3>과 같이 대략 9 개 분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우선 조사방법론에 대해 알아보자. 조사방법론은 고문서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빨굴 조사하는 기법을 말하는데⁴⁴⁾ 이는 사전에 마련한 調査紙(樣式) 와 調査日誌에 현장과 자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빨굴 당시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던 상태와 보존 방법 등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제대로 기록하여 놓지 않을 경우에는 고문서 소장 상황이나 보존 상태 등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亡失하게 된다. 따라서 調査紙를 작성할 때 항목을 세분하여 철저히 기록하고 調査日誌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래에는 미디어가 크게 발달하였으므로 조사의 전 과정을 비디오나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사지나 조사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영상촬영과는 별도로 조사지와 조사일지 작성은 고문서 조사방법론의 기초이기 때문이다.⁴⁵⁾

분류정리론은 빨굴된 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자들이 이를 효율적으

43) 내적연구 방법론은 그 대상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별고로 논의하고자 한다.

44) 김현영, 「고문서 조사·정리에 있어서 ‘현상기록’의 문제」, 『고문서연구』, 11(1998), 5~24쪽 참조

45) 그간 고문서를 조사·수집하는 모든 기관에서 많은 수량의 고문서 빨굴을 일차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빨굴 당시 상황 등을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현장의 유익한 많은 정보를 잃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였다. 비록 늦기는 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이다.⁴⁶⁾ 아무리 고문서가 많이 수집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연구자가 이용할 수 없다면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고문서의 관리자와 이용자편에서 자료를 분류·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각 기관마다 각기 상이한 분류체계를 따른다면 자료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기관에 통용되는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국고문서학회에서 두 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화안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표준안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통한 자료 검색이 크게 강화되면서 일각에서 분류정리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었으나 체계적인 분류정리는 관리나 이용 모든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보존방법론은 수집된 고문서를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영역으로 화학이나 생물학과 같은 자연 과학 분야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분야이다.⁴⁷⁾ 우리나라 기후는 4계절이 뚜렷하며 계절마다 기온이나 습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서를 보존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전통적인 보존처리 방법이 전수되지 않았으며 고문서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한지와 접착제 등에 대한 데이터도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 고문서에 해를 끼치는 좀과 같은 해충이나 미생물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⁴⁸⁾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양식론은 고문서의 다양한 양식과 형태 등을 통하여 고문서의 변천 과정을 규명하는 분야로⁴⁹⁾ 고문서의 명칭과 용어, 手決과 署押,⁵⁰⁾ 官印과 私印⁵¹⁾ 및 書法과 書體⁵²⁾ 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異體字와 俗字 및 簡字 연구, 각종 교정 부호에 대한 연구⁵³⁾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고문서의 양식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기 때문

46) 안승준, 「최근의 고문서 조사·정리 현황과 분류 방법의 문제」, 『고문서연구』 11(1998), 25~52쪽 참조

47) 박지선, 「동양화화·서적의 보존수리에 관하여」, 『미술사학연구』 194·195(한국미술사학회, 1992), 31~45쪽

48) 도이시겐조(외자)/전경미(역), 『문화재 보존과학의 원리』(한언출판사, 2004) 참조

49) 김동우, 「고문서의 양식적 연구 서설」, 『고문서집진』(연세대학교출판부, 1972), 1~35쪽 참조

50) 박준호, 앞의 논문 참조

51) 손환일, 「조선시대의 官印」, 『대한제국기 고문서』(국립전주박물관, 2003), 260~283쪽 참조

52) 심영환, 「朝鮮初期 草書告身 研究」, 『고문서연구』, 24(2004), 181~204쪽 참조

에 이를 잘 연구한다면 각 고문서의 작성 연대를 규명하거나 진위를 판별하는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고문서에 반영된 작성 당시의 시대상이나 사회상 등을 통하여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석론은 고문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이다. 여기에는 고문서에 나오는 草書와 吏讀 연구 등이 포함된다. 고문서를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서에 적혀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해석론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문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접 학문, 즉 역사학이나 국어학 및 철학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재료학은 고문서의 작성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재질에 대한 연구로서 韓紙를 비롯하여 布帛과 木竹 등에 대한 연구⁵⁴⁾와 먹과 붓 및 印朱 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현재 전하고 있는 고문서를 살펴보면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가 활발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종이를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재료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각종 재료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생산된 재료에 대해서까지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기록관리론은 고문서의 생산과 유통 및 관리에 대한 연구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어떻게 했는가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또 이렇게 생산된 문서가 어떻게 유통되었고, 누가 관리하며 어느 곳에 보존했는가 등을 연구해야 한다.⁵⁵⁾ 조선시대에는 각 관아와 부서마다 문서고가 있었으며 또 문서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감정론은 앞에서 설명한 양식론과 해석론 및 재료학 등을 근거로 고문서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고 작성 관련 정보 등을 규명하는 분야이다. 고문서의 진위뿐만 아니라 고문서의 작성연대, 작성자, 작성 동기 및 作成地 등을 밝혀내는 영역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고문서학의 목적이 진위 감정이라고 할 만큼 이 분야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⁵⁶⁾ 특히 각종 소송의 경우에는 관련 고문서의 진위 여부가 승

53) 이복규, 「우리의 옛 문장부호와 교정부호」, 『고문서연구』, 9·10(1996), 457~482쪽 참조

54) 손계영, 앞의 논문 참조

55) 남권희, 「架閣庫考」, 『서지학연구』 1(서지학회 1986), 129~156쪽 참조

패를 좌우하는데 최근에 재산 분쟁과 嫡統 承繼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고문서가 증거 자료로 제시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고문서학 외적연구의 주요 분야

① 조사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밸굴 조사하는 방법론 문헌조사와 탐문조사를 통해 고문서 소장처(자) 확인 사전에 마련한 調査紙(樣式)와 調査日誌에 현장과 자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 조사 전 과정을 비디오나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 특히 밸굴 당시 현상과 보존 방법 등을 꼼꼼하게 기술
② 분류정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론 한국고문서학회에서 마련한 표준화 방안과 연계하여 분류 정리 이용자가 다양한 시각에서 용이하게 검색·활용도록 분류 정리
③ 보존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된 고문서를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론 한지와 벽 등에 대한 과학적 자료 축적 損亡失 자료 복원을 위한 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자료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영상자료 구축 과학적 보존처리를 위한 인접학문과의 공동 연구
④ 양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문서의 다양한 양식과 형태 및 변천 과정 등을 연구 각 양식과 형태 및 각 양식간의 관련성 연구 고문서의 명칭과 용어 연구 手決과 署押 등에 대한 연구 官印과 私印 등에 대한 연구 書法과 字體 등에 대한 연구 異體字, 俗字, 簡字 등의 연구 각종 교정 기호 등에 대한 연구
⑤ 해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문서의 관독과 해석 방법론 고문서에 나오는 草書와 吏讀 연구 인접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 습득 관독과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⑥ 재료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문서의 각종 재질(紙, 布帛, 木竹 등) 연구 韓紙의 종류 및 紙質 연구 벽과 봇 등에 대한 연구 기타 인주 등에 대한 연구
⑦ 기록관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특히 관문서)의 기안과 작성에 대한 연구 문서의 유통과 결재 과정에 대한 연구 문서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연구
⑧ 감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론과 해석론 및 재료학 등에 근거한 고문서 진위 감정에 관한 연구 여러 판본이 존재할 경우 상이한 내용 진위 판정 작성연대, 작성자, 작성 동기 및 작성지 등 판별
⑨ 활용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자료로서의 고문서 활용에 대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을 이용한 활용 연구 인접학문과의 연계 연구 문화컨텐츠로서 활용에 대한 연구

56) 이영훈, 앞의 논문, 84쪽 참조

활용론은 고문서를 사료나 자료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로 정보기술 산업(Information Technology) 와 문화컨텐츠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록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⁵⁷⁾ 고문서를 각종 연구 자료로 이용하려면 이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데 고문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사전에 이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고문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아울러서 이를 문화컨텐츠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상을 하여야 비로소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도표화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2) 학제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집한 60여 만 점의 고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학제간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동안 수집 정리한 고문서들은 대부분 여러 지방에서 수집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 각 문서가 지니는 지역성을 고려해야 하고 아울러 해당 가문의 개별성도 참고해야 한다. 당시의 여러 제도나 풍습 등이 지역이나 가문마다 달랐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나 가문의 사례를 마치 전국적으로 통용되었던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동안 발간한 70여 책의 『고문서집성』을 이용하여 지역이나 가문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해서 연구할 경우, 여기에는 반드시 그 지역이나 가문의 사정에 밝은 지방과 서울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참여하여야만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고문서를 이용하여 이미 학제간 연구를 한 사례가 있다. 전공이 다른 몇몇 연구자들이 모여 기왕에 조사된 호남지역 고문서를 이용하여 문서생활, 생활모습, 촌락생활, 가족과 친족, 경기추세 등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라는 책으로 출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⁵⁸⁾ 그러나 이 연구는 동일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인들의 생활모습이나 촌락생활 또는 가족과 친족의 관계 등을 살펴보기는 하였지만 각기 다른 군현에 있는 가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57) 이남희, 앞의 논문, 25~40쪽 참조

58) 정구복·박병호(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따라서 각 지역이나 가문 간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을 마을이나 가문 또는 이와 유사한 범위로 좁혀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을 좁혀야만 한편으로는 학제간의 연관성이 보다 밀접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제간의 다양한 시각을 심도 있게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3) 고문서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론 개발

고문서는 다양한 배경 아래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문서의 특성에 어울리는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고문서는, 그 자료의 특성상 미시사나 거시사 또는 일상생활사를 연구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분재기 몇 장을 분석하여 그 당시 사회경제 생활상을 규명하거나 혹은 수십 수백 장의 土地明文를 분석하여 중장기 토지가격 변동과 이에 따른 경기의 흐름 등을 살펴볼 수도 있다. 또 한 두 장의 간찰을 분석하여 당시의 일상 생활 단면들을 생생하게 밝혀낼 수도 있다. 따라서 각 고문서 부류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고문서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의 한 사례로서 필자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전라도 부안현 우반동에 살던 부안김씨 소장 고문서를 통하여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현존하는 낱장의 고문서들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서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엮어 보았다.⁶⁰⁾ 또 여기에 시기와 지역, 인물과 주변상황 등을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여러 정보들과 연결시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상과 그들의 숨결을 한층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다. 박제되어 표정도 없는 사건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 인물들의 구체적인 喜怒哀樂이 담겨진 보다 생생한 역사를 고문서 자료들로부터 읽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거시적인 정보란 천재지변, 전염병 및 기후로 인한 사회분위기 등을 말하며, 미시적 정보란 이런 사회상에 대해 한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는가

59) 이외에도 학제간 연구사례로 문옥표·김광억 등이 경상도 안동의 내숲김씨를 연구한『조선양반의 생활세계』(백산서당 2004)가 있으며 학제간 연구는 아니지만 마을을 단위로 한 연구 사례로 경상도 예천의 대저리를 다룬『맛질의 농민들』(일조각 2001)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내용 소개는 생략한다.

60)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서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신아출판사, 2001) 참조

하는 것들이었다. 또 필자는 자료의 지평을 넓혀 簡札, 膳物目錄, 祭文 및 問卜錄 등을 함께 이용하여 서울과 지방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개인의 미묘한 심리 상태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들은 우반동이라는 궁벽한 마을에서 살았지만 끊임없이 서울의 名文家의 子弟들과 교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으며 일생을 살면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고문서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소상하게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가 각 고문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론들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4) 한·중·일의 古文書 비교연구

중국은 고대시대 이래 우리나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에 따라 우리의 고문서도 중국의 그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갑오개혁 이후 문서식이 크게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일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3국의 고문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의 고문서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한국고문서학회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고문서를 비교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커다란 성과를 얻은 바 있다.⁶¹⁾ 이를 계기로 삼아 중국과 일본의 고문서를 전공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점차 배출되어 두 나라의 연구 동향과 업적 등을 우리 학계에 수시로 소개하여 상호간 학술 정보가 활발히 교류된다면 삼국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유익하리라 생각한다.⁶²⁾

IV. 古文書學 연구의 활성화 방안

끝으로 고문서학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그 방안은 첫째 고문서 자료들을 장

61) 2005년 1월에 한국고문서학회 주관으로 ‘고문서를 통해 본 동아시아 근세사회’라는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중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토지관련자료와 호구자료를 중심으로 그 연구 현황과 문제점 등을 상호 비교한 학술회의였다.

62) 중국의 고문서학 그 중에서도 특히 휘주문서에 대해서는 박원호, 『明清徽州宗族史研究』(지식산업사, 2002) 참조

서각과 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연구하고, 둘째 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셋째 고문서 정리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자.

1. 藏書閣과 정보센터와의 연계

고문서학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고문서 자료들을 장서각 자료와 연계하여 연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장서각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규장각과 함께 귀중한 전적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서관이다. 장서각은 원래 조선시대 왕실도서관으로, 현재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고서 10여 만 책은 바로 그 왕실도서관에서 소장하던 것들이었다.⁶³⁾ 따라서 이곳에 소장되어 왕실관련 자료들과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왕실고문서를 연계하여 연구한다면 장서각 왕실자료의 가치가倍加될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위상도 한층 提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사업이다.⁶⁴⁾ 이 사업은 ‘21세기 동국여지승람’ 편찬 사업이라고 불릴 만큼 막중한 사업이다. 향토전자대전을 구축할 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수집한 고문서를 활용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면 또 하나의 역사와 문화 정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의 주관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하게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상에 고문서 e-Museum을 구축하여 연구자와 민간인들에게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고문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문서박물관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아직까지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고문서박물관 설립을 문화관광부나 경기도 및 성남시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그와 병행하여 인터넷상에 고문서 e-Museum을 구축하는 것도 적극 시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인터넷상에 고문서 e-Museum 을 구

63) 장서각에 대해서는『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참조

64) 한국향토전자대전에 대해서는 <http://www.grandculture.net/pf/kit.asp> 참조

축하여 그간 수집한 지방 각 기문의 고문서들을 모두 이미지 자료와 함께 해제를 덧붙여 소개한다면 전문연구자나 일반인들 모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여러 기문이나 개인의 자료들이 이 고문서 e-Museum을 통하여 상세히 소개될 경우, 각 기문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기탁하거나 기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탁이나 기증 등을 통하여 장서각 소장 고문서의 수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고문서 박물관 설립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2.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고문서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초서를 해독하고 고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으나 서로 연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세 기관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개설된 과정은 대학원 전공 과정이고 나머지 두 기관의 과정은 연수 과정이지만 세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인재를 양성할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문서 정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결코 소홀히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고문서학회에서 고문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이제 각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들은 이 표준화안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정리할 司書와 記錄管理士(아카비스트) 등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문서 정리방법 등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위 세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⁶⁵⁾ 이를 위해 1개월 정도의 단기 집중 코스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리 교육을 실시한다면, 우리나라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의 상세한 목록을 완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고문서학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에 있는 대학교 학생이나 대학원생들 중에는 고문서를 공부하고 싶으

65)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비사서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시키고 있고, 행정자치부 기록보존소에서는 기록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시키고 있는데 이들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지방 대학교 중에는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교가 드물거나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대학교가 더욱 없기 때문이다. 만일 방학 기간 중에 위의 세 기관에서 집중강의 등을 통하여 지방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고문서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고문서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학대학원에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집중강의를 실시한 바 있는데 호응이 높은 편이다.

3. 고문서 정리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서울대 규장각 및 한국국학진흥원과 같이 고문서를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고문서 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리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을 망라하는 컨소시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관리와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만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했을 경우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자료를 이용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거나 심지어는 아예 이를 이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각 기관들끼리 정보나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게 되면 자연히 중복 투자나 중복 지원을 막을 수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문서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 규장각 및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⁶⁶⁾ 이 사업은 위 기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고서와 고문서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여 연구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인데 고서와 고문서 자료들에 대한 해제와 원문 및 사진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서를 해독하고 고문서를 해석하는 전문 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 개설된 한국 초서 과정을

66)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http://yoksa.aks.ac.kr> 을 참조

통하여 그간 배출된 전문 인력이 2004년까지 무려 130여 명에 달하며 한국학대학원에서 고문헌관리학전공 과정을 수료한 인력도 속속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토록 한다면 위 사업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서학도 크게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한다.

V. 맷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고문서에 대한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연구 현황은 어떠하며 연구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또 고문서학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한편 고문서학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명실상부하게 한국학 연구의 중심체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으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8년에 설립된 이래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이미 100여 만 점이 넘는 한국학 관련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충실히 규명하여 왔다. 아울러 한국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장차 한국학 연구를 이어 나갈 인재들을 꾸준히 양성 배출하는 한편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각종 자료들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학 발전과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현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뚜렷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듦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위와 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현재 여러 학교나 기관들에 의해 한국학 관련 중요한 역할들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예컨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한국학과 관련된 많은 인재를 양성 배출하고 있으며 또 각 지역의 연구기관에서는 날로 망설되어 가는 典籍과 고문서를 조사·수집·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수집된 전적과 고문서 등 한국학 관련 자료와 양성된 전문 인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조사·수집·정리·연구 등의 모든 과정에서 중복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 효율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학 관련 자료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이유는 대략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그동안 한국학과 관련된 자료들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고, 둘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향토문화전자대전과 같은 편찬 작업을 통하여 전문 인력풀을 구성한 경험이 있으며, 셋째, 대학원 교육을 통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넷째, 한국학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한국역사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등 자료의 정보화 작업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 수집, 정리, 연구, 전시, 정보화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관련 기관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명실상부한 메카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전주박물관, 『대한제국기 고문서』. 전주: 국립전주박물관, 2003.
- 金在得, 『古文獻用語解例』. 서울: 배영사, 1983.
- 김광억(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서울: 백산서당, 2004.
- 김동욱, 『古文書集眞』.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2.
- 김현영, 「고문서 조사·정리에 있어서 ‘현상기록’의 문제」. 『고문서연구』 11, 1998.
- 남권희, 「架閣庫考」. 『서지학연구』 1, 서지학회, 1986.
- 남풍현, 「一三世紀 奴婢文書의 吏讀」. 『壇國大學校論文集』 8, 1974.
- 도이시겐조(외저)/전경미(역), 『문화재 보존과학의 원리』. 서울: 한언출판사, 2004.
- 박병호, 「고문서 자료의 수집·정리문제」.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1호, 1992.
- 박병호, 『傳統的 法體系와 法意識』. 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2.
- 박병호, 『韓國法制史特殊研究』. 서울: 韓國研究圖書館, 1960.

- 박원선, 『負褓商』. 서울: 韓國研究院, 1965.
- 박원호, 『明清徽州宗族史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2002.
- 박준호, 「韓國 古文書의 署名 形式에 관한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박지선, 「동양회화·서적의 보존수리에 관하여」. 『미술사학연구』 194 ·195(한국미술사학회, 1992), 31~45쪽.
-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育志社, 1979.
- 성봉현, 「고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현황」. 『고서·고문서에 비친 조선시대인의 삶』, 장서각 전적 및 수집 고문서 기초연구 중간 발표문.
- 손계영,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손환일, 「조선시대의 官印」. 『대한제국기 고문서』. 전주: 국립전주박물관, 2003.
- 시귀선, 「대한제국시기 기록문화」. 『대한제국기 고문서』. 전주국립전주박물관, 2003.
- 심영환, 「朝鮮初期 草書告身 研究」. 『고문서연구』 24, 2004.
- 안병직(외), 『맛질의 농민들』. 서울: 일조각, 2001
- 안승준, 「최근의 고문서 조사·정리 현황과 분류 방법의 문제」. 『고문서연구』 11, 1998.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고문서집성』(1~2), 1991~1992.
- 윤행순, 「文章表記에서 본 日本의 古文書」. 『고문서연구』 16 ·17, 1999.
- 이남희, 「디지털 시대의 고문서 정리 표준화」. 『고문서연구』 22, 2003.
- 이복규, 「우리의 옛 문장부호와 교정부호」. 『고문서연구』 9 ·10, 1996.
- 이수진, 『慶北地方古文書集成』. 경산: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1.
- 이수진, 『嶺南土林派의 形成』.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 李榮薰, 「日本의 古文書學과 樣式分類」. 『한국고문서정리표준화연구』. 서울: 한국고문서학회, 2002. 9.
-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서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서울: 신아출판사, 2001.
-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1~5). 1983~2001.
-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라도 무장의 함양오씨와 그들의 문서』(1~2). 1986, 1988.
- 정구복,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신문화연구』 제15 권1 호, 1992.
- 정구복, 「한국 고문서의 특징과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의 기초적 연구」. 『한국고문서정리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고문서학회, 2002.
-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서울: 일조각, 2002.
- 정구복·박명호(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체사레 파올리(저)/김정하(역), 『서양 고문서학 개론』. 서울: 아카넷, 2004.
- 최승희, 『韓國古文書研究』.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최재석, 「朝鮮時代의 相續制에 관한 연구: 分財記의 분석에 의한 접근」, 『역사학보』 53·54, 1972.
- 최홍기, 『韓國戶籍制度史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정리표준화안 연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고문서학회, 200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1호, 1992.
- 허홍식, 「國寶戶籍으로 본 高麗末의 社會構造」, 『韓國史研究』 16, 1977.
- 허홍식, 「朝鮮初 沈敬宗의 功臣戶와 그 分析」, 『大丘史學』 15·16, 大丘史學會, 1978.
- 허홍식, 『한국의 古文書』 서울: 민음사, 1988.

● 투고일 : 2005. 4. 21.

● 심사완료일 : 2005. 5. 16.

● 주제어(keyword) : 고문서학(diplomatics, historical manuscripts), 보존방법론(methodology of conservation), 감정론(methodology of expertise), 해석론(methodology of interpretation).